

프레리의 교육철학

1. 머 리 말 - 비판적 교육이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교육학 내지 교육철학의 문제는 인류의 발전을 근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세대가 그 유산을 이어받아 계승발전 하는 끝없는 인류성장의 여로에 있어 체득,답습한 생존과 생활의 방식을 무리 없이 이어가게 하는 총체적인 시스템화 된 골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적인 학문체계가 형성되기 이전 고대원시사회 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발견되고 탐구되어온 과정이다. 인간은 특유의 지능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등동물로서 인간사회의 문명의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이룩된 방대한 유산으로서의 업적을, 그리고 그 부산물인 전쟁과 질병, 인간성파괴 등의 사회병리현상 등을 어떻게 하면 왜곡되지 않게 조화롭게 후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교육의 과정은 인간생애 전반에 걸쳐 수없이 계속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도 같아서 이 역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진화발전을 거듭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학과는 별도로 그 하위학문으로서의 교육철학은 교육의 방향성과 그 시대상의 반영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교육철학이라는 독립적인 교과목이 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학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4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변모와 발전을 거듭하여 교육관과 철학이론의 연장으로서 교육학을 더욱더 체계화시키는 공헌을 하였다.

그가운데 프레리(P.Freire), 애플(M.W.Apple), 바우어(C.A.Bowers), 지로(H.A.Giroux) 파인버그(W.Feinberg) 등의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의 비판적 교육이론에 대해 다루어보기로 한다.

비판적 교육이론은 교육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약과 억압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 속에서 교육이 억압적이고 왜곡된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그릇된 신념과 지식(이데올로기)들을 후세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해 나가는 사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¹⁾

1) 이돈희,조화태 [교육철학] p65

2. 프레리의 교육관(Paulo freire : 1921 - 1997)

사회운동가이자 교육가인 프레리는 1940년대부터 브라질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맹 퇴치교육과 의식화교육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체계를 생명력 없는 단순한 지식 축적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은행 예금식’ 교육으로 규정하고, 이에 비판적인 인식과 참여능력의 배양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객체로서의 인간에서 교육 참여의 주체로서의 인간으로 입장을 변화시킨 ‘문제 제기식’ 교육의 실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개인을 억압하고 사회적 약자를 저항 없이 복종하게 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해방의 교육론을 주창했다.

그의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교육철학은 60 - 70년대 혼란한 정치상황에서 투옥과 망명의 대가를 치르게 했으며 이는 브라질민중들의 문맹퇴치와 함께 민주주의 사회변혁의 교육전략으로서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의 경계를 사기에 충분했다.

프레리는 빈민들이 겪는 이른바 ‘침묵의 문화’ 라는 것에 대해 연구했으며 그들의 침묵과 무기력은 그들을 억누르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배구조 하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빈민들은 자기세계의 구체적인 현실들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자극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억압적인 사회논리에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됨으로써 비인간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기존의 교육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프레리는 파악하였다.²⁾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문제 제기식’ 교육이었다.

프레리가 말하는 이 문제 제기식 교육은 무차별적인 반발력만을 배양하는 도전적인 학습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주종적인관계로서 선세대가 후세대에게 주입식으로 지식을 물려주고 기존질서에 순응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인간해방을 위한 의식화속에 일상적인 사회현실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는 대화로 교육의 궁극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야만 교사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은 점차 자신의 개별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의 모순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식 교육의 기조는 바로 인간화, 의식화 교육으로서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조화태, 정재걸 [교육사]

1) 인간화 교육

프레리의 인간화, 의식화 교육은 일맥상통한 면이 있으나 이를 따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간화 교육이란 바로 교육의 주체로서의 인간성회복을 강조 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BC485?-BC410?)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고 했고, 19세기독일 실존주의철학자 니체(Nietzsche 1844-1900)는 ‘神은 죽었다.’ 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곧 의미를 창조하고 부여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니체 역시 진리와 삶의 의미는 神적존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선택되고 창조된다는 것을 갈파한 것이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전통철학에 있어서 지배적인 사고방식은 세계나 사물의 의미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신, 절대자, 자연) 주어져 있으며 인간은 단지 그것들을 발견해 나갈 따름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물의 인지와 의미부여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나 철학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은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강렬하게 부정되었다.

철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불리우며, 오늘날 흔히 후기현대철학 또는 포스트모던철학이라 지칭되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하면 의미나 진리는 인간이외의 다른 어느 존재에 의해 이미 완성된 채로 주어지거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의 관심과 의도, 신념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수정되고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바로 우리 인간이 의미나 진리창조의 주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란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진리 판단의 기준에 따라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그러한 진리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관심과 의도, 신념과 경험, 지식 그리고 보편적 가치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³⁾

인간은 출생이후에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천지를 창조한 神의 존재역시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⁴⁾ 바로 교육의 일방적 수혜자이고 선도의 대상이던 나약한 인간이 교육의 주체로 부상하는 대목인 것이다.

프레리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비인간화된 교육에 대해서 먼저 해부를 시작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행위자가 된다는 것인데, 비인간화된 교육이란 기존의 기득권세력들의 가치관을 자기자각이 없는, 현실을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교사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고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하향식 길들이기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비인간화된 교육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수동적이고도 무력한 방관자로 성장하게 되고 바로 ‘침묵의 문화’를 형성하여 패배주의에 길들여져 여전히 억압과 종속사회의 유지의 악순환을 재생산하게

3) 이돈희, 조화태 [교육철학] p6 - 8

4) 필자 자주적 의견(종교를 폄하하는 의미가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의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

한다는 것이다. 종속사회 내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억압자로서 일반 민중을 억압하여 침묵 시킬 때 이 교육이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프레리는 전반적인 교육제도가 이 침묵문화를 영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그는 인간화 교육이란 억압받던 자들의 반란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급진적 이데올로기 혁명이 아닌 진정한 인간성회복으로 인한 인간 공동체적 삶을 구상하고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즉 억눌린 자들이 지배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힘을 제거하고 상호 소통함으로써 억누르는 자들이 또한 상실했던 인간성을 회복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진정한 인간화 교육은 억압과 차별이라는 주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인간의 공동체적 삶을 구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프레리에게 있어 인간화교육은 인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의 요구뿐만 아니라 타인의 요구와 열망까지 고려해서 개인의 모든 능력을 계발할 때 비로소 인간은 세계 속에서 자신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사고하게 되는 인간화의 길로 나서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⁵⁾

2) 의식화 교육

인간화 교육이 교육의 본질 면에서 인간성회복에 의의를 둔 반면 의식화 교육은 이로 인한 자각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프레리의 교육사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의식화’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식을 자극하고 일깨워주는 것이다.⁶⁾

바로 이러한 의식화를 위해서 ‘문제 제기식’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레리에게 있어서의 세계관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 세계는 새롭게 변화시키고 구성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동적인 실천의 결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는 곧 인간세계는 결코 우연에 의해서 변혁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세계의 창조자임을 깨닫고 그 세계를 변혁시키는 역사적인 과제를 능동적으로 실천할 때 변화된 세계는 비로소 인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의식화는 무엇인가. 바로 현실세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는 민중들이 차별과 억압 속에서 지배계급의 강요된 가치로 내면화되어 현실을 바로 바라볼 수 없는 문맹의 ‘침묵의 문화’ 속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였다. 억누르는 자와

5) 이견만, 박진환 [paulo freire와 대안학교의 교육사상 탐구] 참조

6) 조화태, 정재걸 [교육사]

억눌리는 자 모두 모순된 세계 속에서 ‘비인간화의 총체’로 서로의 인간성이 파괴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별과 억압이 없는 인간화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사회변혁의 최종 목적임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억눌린 자의 억누르는 자로의 위치변환이 목적이 아닌, 모순된 현실의 비판적 인식을 통해 억누르는 자와 억눌리는 자의 차별의 모순된 상황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세계로 인간화를 달성할 때 그 세계는 비로소 온전해 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누르는 자들의 자성을 바라기보다, 억눌린 자들의 비판적 사회변혁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레리는 교육을 통해서 순진한 의식을 상당한 정도의 비판적 의식으로 대치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피교육자에게 제공해 주어 그들이 사회변혁의 역동적 분위기속에서 그에 적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바로 순진한 변화가능성으로부터 비판적 변화가능성으로 민중들을 옮겨가도록 해 줌으로써 그들이 역사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바로 의식화는 역사적 실천을 요구한다는 것이다.⁷⁾

3. 프레리 교육론의 문제점

프레리의 교육관은 그의 성장배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듯 항상 억압받는 민중의 편에서 지배자가 구축한 기존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그 세계를 깨뜨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마치 박물관에 잠들어있는 마르크스(Marx Karl Heinrich 1818-1883)가 교육가로 다시 살아 돌아온 느낌을 받는다.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파악하였다.⁸⁾

계급은 그와 모순되는 계급과 대립을 이루고, 근본적인 계급대립은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된다고 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러한 대립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계급과 임금을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매각하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사이에서 나타난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에 부착된 잉여가치를 체계적으로 착취당하고, 착취는 필연적으로 투쟁을 촉발시키며, 투쟁은 피 착취자가 착취자로부터 생산수단을 탈취함으로써 종결되고, 마침내 사적소유가 폐지된 ‘계급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⁹⁾

프레리가 말하는 억압하는 자들의 전통적인 교육관을 지배계급의 주술적 착취수단으

7) 이견만, 박진환 [paulo freire와 대안학교의 교육사상 탐구] 참조

8) 공산당선언

9) 강경선, 이재승 [법사상사] p213

로 파악하고, 민중들에게 인간화,의식화의 비판적 교육을 통해 사회변혁을 달성하여 마침내 이상적인 모순없는 인간화의 세계 달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이상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도출한다.

마르크스는 법과 사회제도를 그 지배계급인 부르주아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식화 해놓은 것으로 부르주아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 교육제도 역시 부르주아의 마르지 않는 샘플의 영구보존을 위한 피 지배계급에 대한 정당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이미 예고하였다. 마르크스는 이념 자체의 힘을 부정하고, 그 힘은 오로지 인간들의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특히 피 착취계급의 각성과 혁명적 실천에서 자연법적 이념은 비로소 현실적인 힘이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사회주의가 인류발전단계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그 역사적 필연성 역시 인류의 미래에 필연적으로 실현될 인류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¹⁰⁾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에서부터 유래되는 변증법적 개념으로 보존,폐기,상승의 과정을 거친 후 참다운 이상사회의 도래를 예정하고 있다.

프레리가 말하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소통하면서 세계의 인간주체의 교육철학 역시 마르크스가 말하는 언젠가는 달성하게 될 이상사회를 반영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 ‘문제 제기식’ 교육이 필요한 것이며 모순을 극복하기위해서 억눌린 자들의 행동을 의식화 교육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상사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간사회에서 존재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마르크스가 떠난 후 수세기를 거치고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겪으면서도 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회의적이다. 인류역사는 끝없는 갈등과 투쟁 속에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이상사회를 예정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있어서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고 교육철학이 변화되는 과정은 있다 해도 마치 변증법적 유물론의 과정처럼 투쟁으로 이상적 교육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무리다. 지구상의 어느 동물가운데도 인간처럼 생존의 학습기간이 긴 동물은 없다. 기존세대들이 수세기를 거쳐 검증의 과정을 거쳐 이룩해 놓은 가치철학에 대해 신생아들이 어찌 상호작용으로 대등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비록 불합리한 교육질서에 대해 개선과 민주적 참여의 시도는 바람직한 의견이지만 어느 사회제도나 가치 가운데 서도 교육철학만이 가지는 비중 있는 특성을 지나치게 간과한 채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여 ‘토대(하부구조)-상부구조’의 이론에 너무 가깝게 대응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마치 이 사회의 근간을 구성하는 법질서를 담당하는 법률가들의 배출에 있어서 더욱 더 그러하다. 법률가 배출시험에 있어서 누적되어 확고히 정립된 판례나 법감정 및 법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수학하는 법학도가 독자적인 독특한 법이론으로 기존 법질

10) 강경선,정태욱 [법철학] p83-86

서에 대항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비록 사법시험이 기존의 법질서를 강요받고 굳어진 판례나 외우는 단순암기 주입식과정의 통과검증시험이라는 비판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제도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법질서와 같이 일반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제도일수록 독창성이나 창의성과 같은 돌출행동은 일반국민들의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반역행위이며 쿠데타와도 같은 발상이다.

이와 같이 교육철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를 공격의 목표나 타도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도 민감하고도 위험한 대상이라는 점이다.

프레리의 진보적인 교육관은 대단한 평가를 얻고 타성에 젖어있는 교육계에 자성을 촉구하기에 많은 업적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또한 전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교육학 특유의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4. 맺 음 말

가장 최근의 교육철학 사조로서 비판적 교육철학은 분명 급변화해가는 현대사회에 있어 고착화되지 않는 살아있는 교육실현을 위해 한층 발전적 교육관으로써 교육가들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인류는 20세기의 문명사회에서도 야만의 포화 속에서 두 차례의 인간성 상실의 세계대전을 치루었다. 그리고 아직도 도처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억압과 착취의 악순환의 고리도 계속되고 있다. 평화나 이상은 요원한 것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려 해서는 안 된다. 인류의 발전은 끝없는 갈등 속에 모순을 극복하며 성장해 왔다. 지금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선 창조적 파괴의 시대에 이르렀다.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어느 곳 하나 방기되는 곳 없이 하나의 통신망아래에 포착되고 있고,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계급갈등과 이념논쟁은 이미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 비판이론은 독일철학 특히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비판이론은 인간의 의식이나 지식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약 하에서 형성된다는 인식에 터하여,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의 형성을 억압하고 왜곡시키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약 요인들을 분석 비판하고자 하는 기본입장을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과 비판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억압이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합리적인 인간과 사회의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인간과 사회의 해방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¹¹⁾

프레리는 브라질 민중들의 문맹과 억압 속에 강요된 삶의 해방을 외쳤는지도 모른다.

11) 이돈희,조화태 [교육철학] p63

그리고 그것은 분명 한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우리사회역시 변화와 개혁의 일대 변혁의 수술대 앞에 와 있음을 짐작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호도하며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관료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망각한 채 권력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확보한 유리한 권리를 쉽게 국민에게 양보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건전한 비판을 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또한 투쟁을 위한 비판이 아닌 정당하고도 건전한 비판이 필요한 때이다. 프레리가 말 했듯 억압하는 자들보다 억압받는 자들이 더욱 더 노력해야 만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을 받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있는 자들이 오히려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의 세력에 의해 방향성을 가지고 주입하는 교육에, 또는 의도된 정보에, 왜곡된 가치관 등에 대해 성숙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보편적 가치에서 사물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2003. 10. 20 바람부는 방어진 항에서 당신에게 바칩니다.

※참 고 문 헌

이돈희,조화태 [교육철학]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

조화태,정재걸 [교육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9

이건만,박진환 [paulo freire와 대안학교의 교육사상 탐구] 문음사 2002

강경선,이재승 [법사상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1

강경선,정태욱 [법철학]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1